

‘나꿈꼬또 기싱공꼬또’

테니스 스타들의 러브 스토리

스포츠 스타들의 연애는 언제나 화제거리다. 테니스 스타도 예외는 아니다. 테니스 선수들은 1년내내 세계 곳곳으로 투어 다니느라, 훈련 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지만 그래도 연애했을 시간은 있나 보다. 바쁜 스케줄 때문에 만날 시간이 없어도 사랑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 사랑에 빠진 테니스 스타들을 알아보자.

글_ 박준용 기자 사진_ Gettyimages/멀티비츠



크비토바(왼쪽)와 메이들

페트라 크비토바(체코) 라덱 메이들(체코)

여자 테니스 스타와 아이스하키 선수 커플이 있다. 그 주인공은 크비토바와 메디들이다. 현재 메이들은 체코 아이스하키리그의 LHK Jestřabí Prostějov에서 뛰고 있다. 공교롭게도 크비토바의 전 남자 친구인 테니스 선수 라덱 스테파넥(체코)과 메이들의 이름이 같다. 크비토바와 메이들은 지난 2014년 크비토바가 스테파넥과 결별한 직후 교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크비토바는 “남자친구와 만나는 것은 항상 즐겁다. 가족보다 더 많이 보는 것 같다. 그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를 볼 때마다 행복을 느낀다”고 말했다.

비너스 윌리엄스(미국) 엘리오 피스(쿠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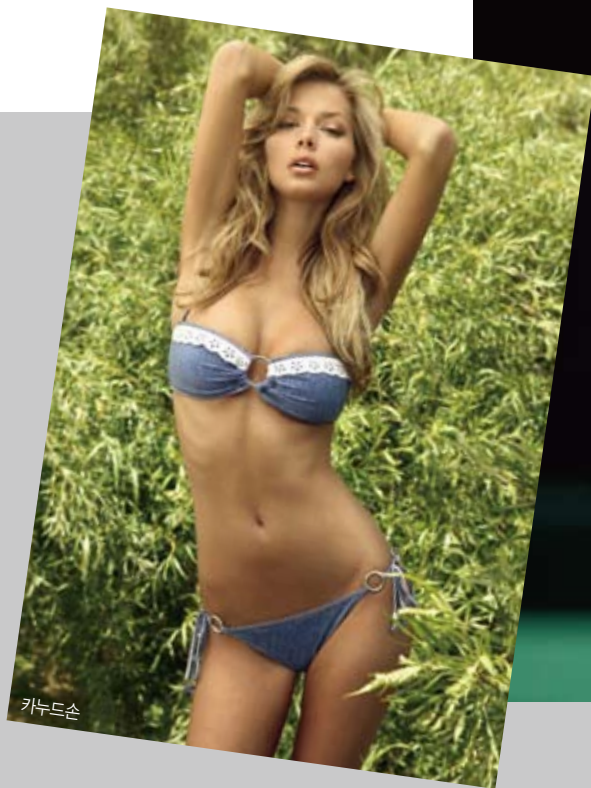
34세 비너스에게도 남자 친구가 생겼다. 상대는 무려 8살 연하의 쿠바 출신 모델 피스다. 비너스가 연하 꽃미남을 처음 만난 건 피스가 지난 2012년 비너스가 론칭한 의류브랜드 ‘일레븐’ 모델로 발탁되면서부터다. 둘은 함께 화보를 찍으면서 사랑이 싹 터 연인으로 발전했다. 185cm의 훗칠한 키에 호감형의 피스는 2012년 프랑스 패션 잡지 <보그>에서 브룩 실즈와 화보를 촬영하기도 했다. 비너스와 피스는 세레나 윌리엄스(미국)가 우승을 차지한 2012년 US오픈 결승을 보면서 키스를 나누고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등 경기내내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비너스



피스



카누드슨



라오니치

밀로스 라오니치(캐나다) 다니엘 카누드슨(캐나다)

올해 초 캐나다 언론이 라오니치와 카누드슨이 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뉴욕에서 처음 만나 데이트를 즐긴 둘은 카누드슨이 올해 초 브리즈번인터내셔널에 참가한 라오니치의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포착되면서 둘의 열애설이 기정 사실화 됐다. 키 179cm의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카누드슨은 프리스타일 스키와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활동하다가 15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모델 일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의류 브랜드 'Guess'의 간판 모델로 활동했는데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매우 아름다운 모델"이라는 글과 함께 카누드슨의 사진을 올리며 그녀의 미모를 칭찬했다.

한편, 열애설이 터진 후 라오니치의 과거 여자친구도 주목을 받았다. 라오니치는 카누드슨과 사귀기 직전 캐나다 배우이자 모델인 파울라 칼리니와 약 2년간 교제했다.



지난 6월 윈블던 파티에 함께 참석한 이바노비치(오른쪽)와 슈바인슈타이거

아나 이바노비치(세르비아)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독일)

1년 전 독일 일간지 <빌트>가 테니스 대표 미녀 스타 이바노비치와 독일 축구 스타 슈바인슈타이거가 교제한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슈바인슈타이거는 지난해 브라질 월드컵에서 대표팀 주장을 맡아 독일이 월드컵에서 통산 네 차례 우승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한 독일 축구의 대표 스타다. 지난 7월에는 연봉 1천만유로(약 126억원)의 연봉을 받고 바이에른 뮌헨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했다.

테니스 스타와 축구 스타의 만남은 축하 받아야 하지만 축구 팬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슈바인슈타이거가 7년 간 사귀던 여자친구이자 미녀 모델인 사라 브란트너를 배신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브라질 월드컵 우승 파티에 슈바인슈타이거와 브란트너가 함께 참석했을 만큼 자타 공인 커플이었다. 또 브란트너는 빼어난 외모로 많은 축구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축구 팬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둘의 관계를 이바노비치가 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슈바인슈타이거는 올 시즌 프랑스오픈과 윈블던에서 이바노비치의 경기를 관람하며 열성적으로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고 연습 코트로 이동할 때는 이바노비치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는 등 뜨거운 애정을 드러냈다.



부샤르



카론

유지니 부샤르(캐나다) ♥ 조던 카론(캐나다)

지난 7월 캐나다의 한 언론이 몬트리올 쇼핑센터에서 부샤르와 카론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사진을 공개했다. 올해 24세로 부샤르보다 세 살 많은 카론은 현재 북미 아이스하키리그(NHL)의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에서 라이트 윙으로 활약하고 있다. 둘의 열애설이 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오면서 둘이 사귀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 당시 부샤르와 카론은 “우리는 연인 사이가 아니다. 친한 동료일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진이 공개된 후에도 둘은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연애 때문일까? 지난해 호주오픈과 프랑스오픈 4강, Wimbledon 결승에 진출하며 세계 여자 테니스의 신데렐라로 떠오른 부샤르가 올해에는 참가하는 대회마다 초반에 탈락하는 등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다. 세계랭킹도 올 시즌 6위로 시작해 26위로 추락했다. 얼마 전에 끝난 US오픈에서는 올 시즌 최고 그랜드슬램 단식 기록인 16강에 오르며 부활하는 듯 했지만 혼합복식 2회전이 끝난 후 사위를 하러 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팔꿈치와 머리에 부상을 당해 잔여경기를 포기하는 불운을 겪었다.



리시키키(오른쪽)와 포처

사비네 리시키키(독일) ♥ 올리버 포처(독일)

여자 선수 중 가장 빠른 서브 속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리시키키가 독일 코미디언 포처와 교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둘은 지난 2013년 독일 TV 프로그램 <Ein Herz für Kinder(A Heart for Children)>에 함께 출연한 후 사랑이 시작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리시키키와 포처는 공식석상에 여러 차례 함께 모습을 드러내며 애정을 과시했다. 하지만 독일 테니스 팬들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다. 포처가 보리스 베커(독일)의 전 부인과 결혼 경력에 있는 등 여자관계가 복잡해 평판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이다.



바브린카



베키치



스타니슬라스 바브린카(스위스) 도나 베키치(크로아티아)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4월 돌싱남이 된 바브린카가 자신보다 무려 11살이나 어린 베키치와 사귀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스위스 TV 방송 진행자 일임과 결혼한 바브린카는 석 달 뒤 딸 알렉시아를 낳았지만 6년 만에 이혼했다. 당시 바브린카는 이혼 사유로 “테니스에 전념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지만 이 말은 믿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바브린카와 베키치는 아주 오래 전부터 SNS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의 글을 남기는 것이 포착되면서 둘의 관계가 의심됐었다. 이 때문에 바브린카가 이혼한 것이 베키치 때문이 아니냐는 소문도 나돌았다.

한편, 지난 8월에 열린 로저스컵에서는 닉 키르기오스(호주)가 바브린카와의 32강에서 베키치가 자신의 절친 타나시 코키나키스(호주)와 잠자리를 함께 했다고 말한 내용이 코트에 설치된 마이크를 통해 퍼져 비난을 받았다. 이 발언으로 ATP는 키르기오스에게 선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대 벌금 1만달러(약 1천1백만원)를 부과했다.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바브린카와 베키치의 애정전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US오픈 남자단식 정현(삼성증권 후원)과의 2회전에서 베키치가 바브린카의 플레이어 박스에 앉아 응원하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여러 차례 잡히면서 사람들의 의심을 낳았다. 바브린카도 “더 이상 키르기오스의 발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쿨한 모습을 보였고 베키치도 “아직 키르기오스와 이야기한 적은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그니에쉬카 라드반스카(폴란드) 다워드 셀트(폴란드)

라드반스카가 같은 국적의 전 테니스 선수 셀트와 사귀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테니스팬들이 깜짝 놀랐다. 1985년생 셀트는 현역시절 최고 랭킹이 852위로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선수였기 때문이다. 그가 현역시절 획득한 상금은 겨우 1만968달러(약 1천2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라드반스카는 세계 2위에 오를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지녔고 벌어들인 상금만해도 셀트보다 무려 9천500백 많은 1천870만달러(약 221억원)나 된다. 이런 라드반스카가 무엇이 아쉬워 셀트와 사귀는 것일까? 아마도 라드반스카만 알고 있는 셀트만의 매력이 있나 보다. 🐼



라드반스카(왼쪽)와 셀트